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 취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1976년 농림부 국립농산물검사소를 시작으로 1981년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원예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장,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장·연구정책과장을



▲ 라승용 원장

거쳐 연구개발국장 등 농촌진흥청의 요직을 두루 역임해왔다. 취임사를 통해 세계인류 축산연구기관 육성을 비전으로 15개 Agenda 중 축산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기 달성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의 지속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라승용 원장은 1957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농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농협중앙회

오세관, 김명기 축산경제 상무 임명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12월 23일자로 오세관 축산지원부장과 김명기 강원지역본부장을 축산경제부문 상무로 임명했다. 오세관 신임 상무는 축협중앙회 서인천지점장, 기금관리부장, 홍보부장 등을 지내면서 농협중앙회 목섬지점장, 축산물판매분사장을 거쳤다. 김명기 신임 상무는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를 시작으로 양구군지부장, 총무부 부부장, 강원지역본부장을 지냈다.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농촌과 어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에 현판식 및 발족기념식을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경기 의왕시 소재) 및 15개 도 지역본부·사업단, 93개 지사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은 물론 어촌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을 포괄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제 살리기 녹색희망 선봉대’ 출범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림수산 관련 기관·단체들과 함께 10일 경기도 과천 농식품부 청사 옥상 하늘공원에서 새해를 맞아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힘내라, 우리 경제! 농림수산인이 간다-경제 살리기 녹색희망 선봉대 출범식’이라는 명칭의 이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직원, 농협

· 수협·산림중앙회, 농민단체협의회, 전국수산단체협의회 등의 임직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농어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을 마친 후, 장관을 비롯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관악산 정상 등반을 통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도 경제살리기에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선봉에 서서 앞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본회에서는 이준동 회장과 김동진 홍보부장이 행사에 동참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2008년 12월 19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08.5.9.)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동물용의약품 등 정기약사감시 실시

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08년도 4/4분기 정기약사감시('08.11.17~12.2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약사감시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6건), 표시사항 위반(3건), 시험검사대장 미비치(2건) 등이다.

검역원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09년도에는 취약업소('08년 약사감시 적발 업소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반사항의 재발방지 및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로 수입 역대 최고액 경신

검역원은 작년 한 해 그동안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민간 동물약품 제조회사들과 31건의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1천만원에 달하는 실수로 수익을 거두었다고 이주호 검역원장은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특허실시 계약을 통하여 산업화된 주요 특허로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술(7천만원), 돼지만성소모성질환(PMWS) 자가조직백신 생산기술(4천만원) 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이외에 13건의 검역원 특허기술이 산업체에서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술사용료도 저렴(기본율 3%)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기술개발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